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4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9일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코로나 끝나는데 … 광주문예회관 개관 또 연기

올해 9월에서 2023년 3월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화행정 허술
대극장·소극장 모두 휴관
지역 공연단체·문화계 큰 혼란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20억원, 시비 277억원 등 모두 297억원을 들여 19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1722석 규모의 대극장과 504석 규모의 소극장의 무대장비(기계·조명·음악시설)를 교체하고 냉동기·공조기·주차장 등을 보수하는 공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9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대극장 개관 시기가 2023년 3월로 또 다시 연기되면서 지역 문화계가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공연기획사와 지역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두 번째 연기로 내년 3월까지는 대극장은 물론 소극장까지 동시에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 공연단체들의 경우 공연장 잡기에 애를 먹게 됐다.

무엇보다 재개관 시기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문예회관과 공사를 담당하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 사이의 의견 조율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일방적으로 재개관 일정을 발표하는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부재를 드러내 허술한 문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최근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극장과 소극장의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휴관한다고 밝혔다.

대극장 재개관은 당초 예정보다 1년 3개월이나 연기됐다. 문예회관은 지난 2021년 초, 설계용역을 끝마칠 당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해 8월 완공시기 착오로 올 9월 대극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소극장 또한 당초 2023년 1월 공사를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보다 2달 늦은 3월에야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소극장과 대극장 공사 시기를 조정해 문예회관이 완전히 문을 닫는 상황을 피하려했던 당초 계획도 의미가 없어졌다.

대극장 재개관만 고대하던 지역 공연계는 허탈감에 빠졌다.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 작품 준비를 위해 미리 공연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만 '개관 연기'만 발표할 뿐 공연장을 이용하는 예술단체, 공연 기획사들에게 진행상황 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킹키부츠' 등을 대극장 무대에 올릴 계획이었던 한 공연계 관계자는 "2년 동안 공연을 하나도 못했다. 9월에 맞춰 작품을 준비중인데 시기를 또 번복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좌석은 어떻게 바뀌고, 무대장치는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5월부터는 소극장까지 공사에 들어가면서 문화계에서는 최대 2322석(대극장 1722석·소극장 504석)의 공백으로 인한 대관 대란 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지역 소규모 공연단체들은 500~700석 규모 공연장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오는 5월 창작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인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700석 규모의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문예회관 대극장 공백을 빛고을시민문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메우고 있다 보니 공연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대극장 공사가 끝난 후 소극장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푸념했다.

▶2면으로 계속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

정부, 29일 중대본 회의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선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29일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 했던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검찰개혁 입법 일정따라 착착 진행 ▶4면
3년만의 수학여행…아이들 웃음꽃 피었다 ▶6면

북스 - '섬진강 일기'·'식물의 방식' ▶14·15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든 5월 21일 방한 … 윤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찾은 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간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이기도 한 이번 방문에서는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와대는 구체적 일정을 협의중이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겹친 1년여간 한미정상회담 외에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수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 동석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